和歌山で感じたこと

ベ　ソンヒョン
教育学部　日本語・日本語文化研修留学生　韓国

私が最初に和歌山を知ったのは留学のためにいくつかの学校を探していた時である。その時、和歌山大学という学校を知り、和歌山が地域名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和歌山大学に留学することを決めた私はインターネットで和歌山を検索してみて‘和歌山’が関西地方で大阪の横の地域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インターネットでは、和歌山の情報が足りなくて和歌山がどのような地域であるかを詳しく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で私は和歌山について詳しくわからない状態で、昨年 9 月末、和歌山に来た。これまで 8 ヶ月を和歌山で過ごした。私が初めて和歌山に来た時に感じたことを思い出してみると、和歌山は山が多く、静かな田舎という感じだった。正直言って和歌山は私が思ったよりも田舎だった。私は韓国でも田舎で暮らしたことがなかった。なので、韓国の田舎の良さを知らない私は、日本で始めて生活するのに田舎で楽しく過ごせるかと心配になった。そしてせっかく日本に来たが、韓国でも有名で、外国人が多く住んでいる東京や大阪などの都市で生活するのがもっと良い留学生活を過ご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た。和歌山に留学を決めたことを後悔するのではないか心配になった。和歌山に来たばかりにの頃は、和歌山での生活が気に入らなかった。学校の寮も山の上にあり、バスも 1 時間に 2 回ぐらいしか来ず、和歌山大学の周辺には学生食堂しかないという事実にがっかりした。

そんなある日、留学生の友達と海に遊びに行った。久しぶりに自然の景色を見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良かった。韓国の大邱に住んでいた私は大邱に海がなくて海に行くためには釜山まで行か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に、和歌山では海が近くてよく行く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そして、その夜、寮に戻るため、上り坂を歩きながら空を見た。空には星が多く、星がよく見えた。

その日、海と星を見てから和歌山について私の考えが少し変わった。生活するには都市より不便なところが多いが､都市より自然ともっと近くで過ご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は、私に良い印象を与えた。今も時々ベランダに出てみると、和歌山の景色と一緒に赤い夕焼けが見え、それを見れば、すごく心が安定して気分が良くなる。このように日常的に自然に接する機会が多いだけでなく、和歌山には‘白浜’、‘高野山’という有名な観光スポットがあり、白浜温泉は、日本でも有名であると聞いた。まだ行ったことはないが「日本」といえば思い浮かぶ‘露天風呂’や‘神社’など日本らしさが感じられるところが多い。このような面で都市とは別の理由で留学生が住みやすい場所である気がした。外国人が都市よりも少ないことが、むしろ日本語の実力が上達するのに役に立つし、日本人ともっと親しくなることができるきっかけとなった。和歌山は最初の印象が良くないかもしれないが、見れば見るほど魅力ある地域である。今後二ヶ月程和歌山で住むことになるが、残りの期間で和歌山のいろいろな場所に行ってみて和歌山だけの魅力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時間を持ちたいと思う。ただし、交通は不便だ。しかし、自然が感じられる和歌山に来て良かったと思う。

와카야마에서 느낀 것

한국 배 성현

내가 처음 와카야마를 알게 된 것은 유학으로 여러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와카야마대학교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 때, 와카야마가 지역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카야마 대학교에 유학 가기로 정한 나는 인터넷으로 와카야마를 검색해봤고, 와카야마가 칸사이지방으로 오사카 옆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와카야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와카야마가 어떤 지역인지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와카야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작년 9 월 말, 와카야마에 왔고 지금까지 8 개월을 지냈다. 처음 와카야마에 왔을 때 느낀 것은 산이 많고 조용한 시골이라는 느낌이었다.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카야마는 더 시골이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살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의 시골의 좋은 점을 모르는 내가 외국인 일본의 시골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모처럼 일본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도시에서 사는 게 더 좋은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와카야마에 유학을 결정한 것이 후회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와카야마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학교 기숙사도 산 위에 있고, 버스도 1 시간에 2 번 정도밖에 안 오고 와카야마대학교의 주변에는 학생식당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다. 점점 실망뿐이던 어느 날, 유학생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갔는데 오랜만에 자연 경치를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한국의 대구에 살던 나는 대구에 바다가 없어서 바다에 가려면 부산까지 갔어야 했는데, 와카야마에서는 바다가 가까워서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 날밤 기숙사에 돌아가기 위해 오르막길을 걷던 중 하늘을 봤는데 별이 많았고 잘 보였다. 그 별을 보면서 와카야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생활하기에는 도시보다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만큼 자연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은 와카야마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다. 가끔 베란다에 나가보면 와카야마의 경치와 함께 붉은 노을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연을 접하는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와카야마에는 시라하마, 고야산이라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고 시라하마 온천은 일본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본'이라 하면 떠오르는 노천온천과 신사 등 일본스러움이 느껴지는 곳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도시와는 다른 이유로 유학생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인이 도시보다 적은 것이 오히려 일본어 실력이 능숙해지는데에 도움을 주었고, 일본인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와카야마는 첫인상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볼수록 매력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2 개월정도 남은 기간 동안 와카야마의 여러 곳을 가보고 와카야마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잇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비록 교통은 불편하지만 와카야마에 유학 오길 잘 한 것 같다.